

7장 소유가 없는 세상

소유가 없는 세상을 상상해보세요.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욕심을 부릴 일도, 배고플 이유도 없는 세상,
한 형제처럼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누며 사는 세상을 상상해봐요.

- 조만간 닥쳐올 공유 경제의 규모와 영향력에 대한 예측은 제각각이다. 크라우드 펀딩, 온라인 직원 모집, 개인들이 직접 거래하는 숙박 시설 제공, 차량 공유, 그리고 디지털 파일 음원과 영화 제공등이 가장 크게 성장할 거라고 예측한다. 2030년에는 공유 경제가 전 세계 용역과 소비의 30% 이상을 차지할 것이다.
- 인터넷을 통한 협업과 공유의 위력을 처음 알아차린 사람은 우버나 에어비앤비 같은 기업의 창업자들이다. 현재 에어앤비에는 191개국 6500여 개가 넘는 도시 마을, 교외지역 400만여 곳이 등록되어 있으며, 기업 가치는 400억 달러에 달한다. 위대한 기업을 세우고 싶다면 시대를 관통하는 진짜 흐름에 올라타야 한다. 또한 다른 사람과 다르게 시장과 기술의 흐름을 바라보고 빨리 알아차릴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에어앤비는 젊은 여행자와 나이 든 집주인들을 하나로 묶어주었다. 에어앤비의 성공을 이끈 핵심은 우리가 감정 없는 사물이 아닌 하나의 공동체라는 사실이다. 사람들은 그저 쉬기 위해서가 아니라 새롭고 흥미로운 경험을 해보기 위해 여행한다.

오래된 규범으로의 회귀

- 협력적 소비와 자산 공유는 전례가 없던 일이 아니다. 인류 역사의 90%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인간은 사유재산 없이 생존했고 오히려 더 번성했다. 특히 토지와 관련해서 그런 면이 두드러진다.
- 오늘날 젊은 세대들은 물건을 소유하는 대신 일정 비용을 내고 공유하며 나눠쓰는 방식을 선호한다. 이들은 재산이나 재물을 공유의 관점에서 바라보는데,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하는 개인 소유물까지도 상호 이익을 위해 공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030년이 되면 매일 하는 소비의 절반 가까이를 ‘공유’ 혹은 ‘협력’ 형태의 소비가 차지하고, 여기에는 자동차와 집, 사무실, 각종 장비를 비롯해 온갖 개인 소유물들이 포함될 것이다. 소유의 개념은 사라지고 공유라는 개념이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 밀레니얼 세대들은 점점 더 많이 가정과 직장 휴식의 경계선을 허물고 있

다. 시간과 돈을 절약하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서로의 공간을 공유하는 것이다. <포브스>는 이런 현상을 ‘비소유권’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 공유 경제는 기본적으로 소비를 진작하며, 여기에 편리함과 저렴한 비용을 더하며 소비자들을 더욱 끌어들인다. 공유 경제 사업을 시작한 사람들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다. 그들은 밀레니얼 세대와 노년층을 하나의 사업 안에서 엮어내는 날카로운 수평적 사고의 감각을 발휘했다.
- 개인이 소유하는 재산은 오랫동안 사회적 계급 질서의 핵심이었고, 불평등과 전쟁을 포함한 온갖 범죄 행위의 주요 동기가 되었다. 시장 경제와 경제 교류의 근간에도 사유재산 제도가 자리하고 있다.
- 공유 경제 기업들은 새로운 사고방식이나 새로운 용역뿐 아니라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사람들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나 컴퓨터를 통한 대규모 자료 처리 시스템이 개발되지 않았다면 우버나 리프트는 세상에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연결의 힘

- 스마트폰 전용 통신 어플리케이션 개발 업체 왓츠앱의 창업자 액턴의 설명이다. “우리는 사람들 사이의 친밀한 관계에 관심 있다.” 얀 쿤은 더 큰 야심을 드러냈다.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이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저렴하고 믿을 수 있는 방식으로 의사소통하는 날까지 가던 길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 많은 유형의 사업체들이 이른바 네트워크 효과로 이득을 얻고 있다. 실제로 공유 경제 전체가 네트워크 효과에 의지하고 있다. 이제 모든 사람이 함께 나누며 사는 세상이 올지도 모른다.
- 공유와 협력의 경제는 소비자와 노동자가 뒤섞인 완전히 다른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다.

임시직 경제

- 불안정한 고용이 가져오는 부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일부 연구자들은 공유 경제가 소득 분포에서 최하위에 있는 계층을 돕는다고 주장한다. 공유 경제에는 수요자 측에 있는 소비자와 공급자 측에 있는 노동자 모두를 포함해서 경제적으로 불리한 사람들을 도울 잠재력이 있다는 결론이다.

- 더 나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이런 부업에 나서서 따로 수입을 얻고 기존의 비숙련 노동자들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자신들이 하던 일을 빼앗기는 상황 속에서 수입의 불평등이 더 커지고 있다.
- 임시직 경제가 제공하는 여러 사업을 성공적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이다. 분명 사람들은 여분의 시간을 이용해 수익을 올리고 있다.
- 전통적 의미의 정규직은 이제 더 이상 안전하지 않고 그나마 점점 사라지고 있다. 남아 있는 사람들도 삶에서 다른 무엇인가를 할 수 있기를 꿈꾼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 그런 사람들에게 매력적이고 흥미로우며 자유롭고 심지어 수익성도 좋고 안전한 대안을 제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들은 상품 자체보다 시간과 경험에 좀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이제 이들이 생각하는 새로운 가치는 물질적 풍요가 아닌 삶의 질이다.
-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양방향 사업이 계속 확장하면 2030년의 노동 시장은 지금과 크게 달라질 것이다. 그런 상황은 누군가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걸 갖고 있거나 혹은 누군가는 돈이 있고 누군가는 시간이 많다는 사실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방식일지도 모른다. 결국 전층적인 개념의 많은 기업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어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하는 노동 시장의 조정에 관여할 것 같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모든 노동자들을 위한 보편적이고 실행 가능한 안전망을 만들 방법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새로운 계층의 출현

- 공유 경제는 결국 필요한 걸 모두 소유하기에는 자원이 부족하다는 현실과 집과 자동차 같은 자산을 새롭고 협력적이며 집단적으로 사용하는 일에 대한 선호도가 합쳐지면서 촉발되었다. 여러 공유 관련 사업과 어플리케이션에서 수요자측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젊은 세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흐름을 통해 젊은 세대가 더 정치에 무관심해질지도 모른다.
- 공유 계층이 부상하면 많은 노동자가 최소한 완전히 은퇴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를 통해 또 다른 획기적인 정치적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 임시직 경제 활동을 하는 공유 계층은 은퇴를 늦추거나 시간제로라도 일을 계속하는 쪽을 선택할 것이고, 그 규모도 정규 직원을 넘어설 것이다. 많은 노년층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에어비앤비로 집을 빌려준다.
- 같은 공유 계층이라도 소비자와 임시직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차별과 임금 격차, 사회적 안전망 같은 중요한 정치적 문제들에 대한 관점이 다른

경우가 많다. 이들의 시간 활용이 비교적 자유롭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규직 노동자들보다 선거에 더 많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이들의 자립심과 독립적인 자세는 경제적 문제에서는 진보적 가치, 그리고 사회적 문제에서는 보수적 가치에 공감하게 될 것이다. 2030년에 유럽과 미국, 그리고 세계 다른 지역 노동력의 절반 이상이 임시직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로 채워진다면 정치적 지향은 크게 달라질 것이다. 만약 독점적 디지털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면 결국 소비자와 노동자 모두를 착취하게 되지 않을까?

압도적 독점의 위험

- 공유 경제가 문제가 되는 이유 중 하나는 대부분의 경우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공유 경제 자체가 새롭고 혁신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기존의 규정들을 적용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공유 경제야말로 우리가 알고 있던 세계를 종말로 몰고 가는 방법들 중 하나가 아닐까.
- 우버 이용자 입장에서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의 편리함과 많은 등록 차량, 그리고 적절한 가격이 매력적이다. 또한 등급이나 평점을 매길 수 있어서 투명성도 보장된다. 우버 경영진이 예상하지 못한 유일한 문제점은 대부분의 도시들이 도시 운송 체계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이다. 택시 사업체와 소속 기사들로 우버 같은 사업에 가장 소리 높여 반대했다.
- 야심에 찬 실리콘밸리의 신생 기업들은 크게, 그것도 아주 빠른 속도로 크게 성장하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몸집을 키워야 이익을 낼 수 있고, 빠르게 성장해야 경쟁 기업들이 비슷한 사업을 시작하는 걸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버는 ‘압도적 독점’ 전략을 취했다. 우버의 성공에는 “경쟁 업체든 정부의 규제든 상관하지 않고 모든 어려움과 불편함을 돌파하는 전략”도 어느 정도 기여했다. 우버의 공격적인 성공 전략은 그 기반이 되는 지역의 네트워크 효과라는 맥락 안에서 바라봐야 한다. 일단 특정 도시에 우버와 연결된 운전자와 이용자가 더 많아지는 것이 좋다. 가능한 한 빠르게 지지 기반을 성장시키는 방식이다. 우버가 독점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수평적 사고를 적용한 덕분이었다. 우버 창업자들은 사업이 방해받으면 등록된 운전자와 이용자들이 편을 들어줄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제 우버는 누구도 어쩔 수 없는 압도적인 독점 기업이 되었다.
- 혁명적인 사실은 공유 경제가 사회경제적 역할과 관계를 뒤집었다는 점이다. 우버는 소득이 적은 노동자들과 은퇴자들에게도 또 다른 수입을, 실업자들에게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한다. 운전자들은 일의 유

연함과 투명성을 마음에 들어 했으며, 더 이상 회사의 배치에 따라 움직일 필요 없이 어플리케이션으로 일거리를 자유롭게 고를 수 있다는 사실도 깨달았다. 물론 이용자들 역시 선택의 폭이 크게 넓어졌으며, 기존의 택시로 이용하기 어려웠던 외곽 지역이나 도시 중심부의 가까운 거리도 원할 때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

디지털 공유지의 비극

- 공유 경제란 갖고 있는 모든 것,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돈으로 바꾸는 것이 아닌가. 사람들이 소유한 주택은 이제 더 이상 중산층의 상징이 아니며 그저 돈으로 바꿀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되어 버렸다.
-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이 지켜지지 않는 두가지 예외 상황이 있다. 한 사람이 다수의 결정을 따로 혼자서 분석할 경우 그 다수의 결정이 가져올 결과는 예측할 수 없다. 즉, 자유시장에서의 경쟁이 모두에게 유익하다는 이론에 허점이 있다고 생각했다. 또 하나는 사적 이익에 움직이는 시장의 경이로움과 관련된 두 번 째 예외 상황은 이른바 '공유지의 비극'이다. 공동의 자원을 어느 개인이 이기적인 목적으로 남용하면 모든 사람이 사용해야 할 자원이 예상치 못하게 고갈된다.
- 우버와 에어비앤비에 대해 일부 사람들은 때로 폭력까지 써가며 강력하게 반발한다. 공유지의 비극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규제받지 않는 차량 공유 사업이 도로 위에서 더 큰 정체와 불편을 만들어낸다고 두려워한다. 우버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교통 문제가 더 악화되었고 대중 교통에 대한 투자 분위기도 가라앉았다. 에어비앤비 역시 많은 유익을 가져다 주었지만 관광객들을 지나치게 많이 끌어들이는 바람에 주변 지역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기존 주민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린다는 비난을 받았다.
- 공유지의 비극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자원 고갈과 생태계 붕괴를 피하기 위해 사람들이 처음부터 서로 협력하고 뭉치면 공유지의 비극을 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원 공유에 대한 규율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며, 규율을 위반하는 사람에 대한 적절한 제재를 준비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체의 결정에 따르는 분위기를 만들라고 권유했다. 정부나 행정당국이 규제를 통해 간섭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공동의 자원을 관리하고 이용하는데 나서라고 이용자들을 격려할 필요가 있다.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때 풀뿌리 운동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

다. 따라서 공유 경제가 참여하는 사람과 거기에 영향을 받는 사람 모두를 돕는 최선의 방법은 역시 공동의 이익에 대한 추구일 것이다.

그 양배추를 버리지 마오

-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식료품의 3분의 1 이상이 쓰레기통으로 직행한다. 여성들은 무게로 따지면 1년에 82파운드(약 37kg)에 달하는 옷을 내다 버린다. 식료품과 옷의 낭비를 피하면 전 세계의 탄소 가스 배출을 10%가량 줄일 수 있다. 석유 산업을 제외하면 이두 산업이 기후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모든 것을 공유하는 세상에서는 자동차 공유, 옷 바꿔 입기, 아이 함께 돌보기, 음식 나눠 먹기, 공동 거주등이 삶을 더 재미있고 더 친환경적으로, 그리고 더 마음 편하게 만들어 준다.“
- 인터넷과 모바일 기술로 연결된 사회 안에서 공유란 한때는 직업이나 업무라고 불렸던 것들을 각기 다른 사람들이 처리할 수 있도록 작은 부분들로 쪼개는 것을 의미한다. 그 사람들은 집이나 혹은 각기 다른 시간대에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사무실 공간에서 주어진 일을 처리한다. 사유재산도 의미가 어느 정도 달라져서 역시 잘게 쪼개 접근해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가격은 낮아지고 일종의 유연성도 생겨났다. 이런 현상들을 뒷받침하는 문화는 더 이상 소유하지 않고 경험하고 향유하는 세계관, 공정한 경쟁, 그리고 더 단단해진 공동체 의식이라는 개념과 일치하는 듯하다.